

第225回國會 教育委員會會議錄 第3號(附錄) (定期會)

國會事務處

日 時 2001年11月13日(火)

場 所 教育委員會會議室

【서면질의·답변서】

(질의서)

○曹正茂 위원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본 위원이 어제도 올해 수능에 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수능에 나타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 이렇습니다.

수능의 목적 또는 취지는 고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종합적인 사고력 측정과 대학수학능력 적격자 선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제학상의 “두마리의 토끼”에 비유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적인 사고력을 위해서라면 어려운 수능이 출제될 수밖에 없고, 수능이 대학 수학적적격자 선발에 치중한다면 미국의 SAT처럼 자격시험화 되어 쉽게 출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능은 대학의 다양한 선발권 보장을 위해 수능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의 특수성 때문에 학생선발의 변별력 기준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수능은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해마다 난이도의 방향과 정도에 따라 엄청난 비난을 받을 구조적 딜레마에 있게 됩니다.

이번 수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난이도 조정 실패는 참신한 유형의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고 이것이 학생들의 수학능력과 적절하게 부합하지 않았다는데 그 주된 원인이 있다할 것입니다.

문제는 방향이 옳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실과 조화를 이루게끔 하는 완충장치가 없었다는 것인데,

현행 수능 출제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을 보면 이 기구는 수능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주된 업무는 교육과정의 연구와 수능의 행정적 관리만 하고 있고 수능 문제출제와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는 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즉, 수능 문제의 적정성과 참신한 문제에 대한

검증, 현행 수능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에 대한 인적, 물적 검토시스템이 없습니다.

올해 수능에도 일시적으로 태스크 포스팀이 조직되었지만 수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일시적인 조직으로는 이미 그 자체 한계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들도 스스로 “취약한 부분”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본 위원은 수능 출제와 대입제도에 관한 연구를 전담하는 상설적인 조직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두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중학교 의무교육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한시적으로 분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예산 부족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부총리! 헌법 제31조 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의무교육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 제39조 1항 단서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제12조를 보면 2004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엄연히 법인격이 서로 달라 이는 헌법 제31조 3항 국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위헌소지는 없습니까?

(답변서)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韓完相

(金貞淑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수능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대책(표준점수 보완 등)에 대하여 물

으셨습니다.

(답 변)

- 우리 부는 금년도 수능시험 채점결과가 나오는 대로 문항별 정답률 및 난이도 검토 등 관련사항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 이를 토대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표준점수제, 문제은행식 운영방안 도입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평가원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12월 중 시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玄勝一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금년도 졸업생의 특기적성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성적 하락의 불이익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희생된 금년도 수능시험생들을 구제하는 대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금년도 수능시험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당초 예측한 수준보다 훨씬 어렵게 출제되어 수험생·학부모·일선교사 등에게 혼란을 주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나, 학생의 특기적성을 반영하는 특별전형을 포함한 대학에서의 학생선발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가 적용되므로 특정학생이나 집단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曁正茂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수능출제와 대입제도 연구를 전담하는 상설적인 조직을 두는데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우리 부는 금년도 수능시험 채점결과가 나오는 대로 문항별 정답률 및 난이도 검토 등 관련사항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 이를 토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수능출제를 위한 상설적인 전담조직 설치, 인원확보 등을 포함한 수능의 난이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기관과 함께 다각도로 검토하여 시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질 의)

중학교 의무교육 추진과 관련 국가 재정여건상 2004년까지 의무교육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토록 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무상성’ 원칙 및 국가부담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답 변)

- 헌법에 규정된 의무교육 무상성 원칙의 입법취지는 의무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학부모의 경비부담을 면제토록 한 것으로서,
 - 우리 부에서는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대한 헌법상의 규정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학부모 부담 수업료와 교과서 대금 전액을 국가가 보전토록 하였습니다.
- 다만, 국가재정여건을 고려하여 2002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되, 2004년까지는 교원봉급 등 소요재원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 외국의 사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무교육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金成東

(金花中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 1-1)

현재 출제 방식을 문제은행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 1-2)

채점 시 표준점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질의 1-3)

출제자를 미리 선정하여 문제를 출제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질의 1-4)

정부가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에 갈 수 있다고 했다면 그 한 가지를 열심히 한 학생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이번 대학입시에 반영할 생각은?

(답변 1-1)

- 약 한달 간 폐쇄된 장소에서 시험을 출제하는 현재의 출제 방식은 문제의 유출 등 보안상의 이유와 공동 논의를 통한 집중 작업의 필요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해 왔음.
- 그러나 이러한 출제 방식이 갖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우리 현실에 알맞은 문제은행식을 포함한 새로운 출제 방식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1-2)

- 표준점수제는 이미 지난 99학년도부터 도입하여 현재 원점수와 함께 표준(변환)점수를 기재하고

있음. 금년도에는 대다수의 대학에서 표준점수를 활용하고 있음.

- 2002학년도에의 경우, 정시모집에서 4년제 국·공·사립대학 192개 중 142개 대학이 표준점수를 활용하고 있고, 50개 대학은 원점수를 사용하고 있음.

(답변 1-3)

- 출제자를 미리 선정하여 출제를 의뢰하게 되면 문제의 사전 유출 가능성이 커,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답변 1-4)

- 대학입시제도의 결정 사항은 본원의 소관 사항이 아니나, 이번 수능과 관계없이 이미 각 대학에서는 대학입시 요강에 특정 분야에 특출한 재능과 적성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음.
- 참고로 특별전형의 종류가 98년 45종에서 2002학년도에 186종으로 대폭 확대되었음.

(李在禎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 1-1)
현재 출제 방식을 문제은행식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 1-2)
시험을 단 1번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1년에 두 세 번쯤 선택적으로 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답변 1-1)

- 약 한달 간 폐쇄된 장소에서 시험을 출제하는 현재의 출제 방식은 문제의 유출 등 보안상의 이유와 공동 논의를 통한 집중 작업의 필요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해 왔음.
- 그러나 이러한 출제 방식이 갖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우리 현실에 알맞은 문제은행식을 포함한 새로운 출제 방식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음.

(답변 1-2)

- 시험을 여러 번 실시하는 방안은 우리 원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이 방안은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시험을 여러 번 시행할 경우 시험간의 난이도 차이로 인해 특정 수험생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원점수와 표준점수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 원점수를 폐지하고

표준점수만을 사용해야 함.

- 단 1회 실시에 따라 일부 수험생들이 심리적·신체적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불리함을 겪을 수도 있음. 그러나 일부 수험생들의 불리함을 만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차례 기회를 주는 것은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른 수험생에게 또 다른 심리적 부담감을 줄 수도 있으므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본 대학입시센터시험의 경우 본시험을 실시한 1주일 후에 추가 시험을 실시함. 그러나 추가 시험 대상자는 질병, 부상, 기타 사정으로 시험 당일 응시할 수 없는 자로 제한하고 있음.

(金徳圭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수능시험은 교육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준비되고 실시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 변)

- 수능과 같이 국민적 관심과 수험생의 인생이 걸린 중대한 시험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긴밀한 협의하여야 할 뿐 아니라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고 봄.
- 특히 시험의 시행과 관련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긴밀한 협조 관계가 필요하며, 실제로 우리 원은 위임 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와 시험 수행의 매 단계마다 하나도 빠짐없이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추진하고 있음.